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19년 6월 29일(토)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28.(금)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9. 6. 28.(금) 17:00	담당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
담당과장	이상욱 과장(044-203-4650)	담 당 자	류노열 사무관(044-203-4649)

제조업 르네상스 |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

송도, 세계 일류 바이오클러스터로 확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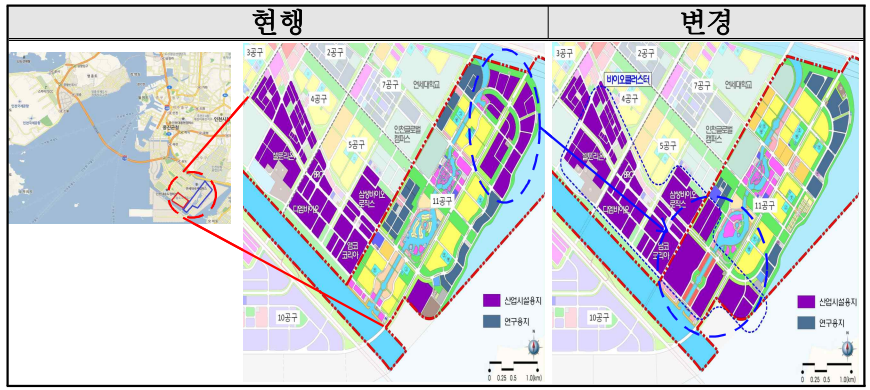
- 제10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송도 11공구 산업용지 확대 및 재배치 심의·의결 -

□ 산업부는 '19. 6. 28(금) 제10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 11공구의 산업용지를 확대 및 재배치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금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송도 11공구의 산업·연구시설용지가 1,754,533㎡ → 1,828,750㎡(증 74,217㎡)로 확대되었고,

○ 송도 11공구의 산업시설용지를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인 송도 4, 5공구 인접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바이오산업간 연계효과를 강화하였다.

< 산업단지 재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내역 >



□ 위원회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셀트리온* 등의 투자를 계기로 송도를 세계 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확대·조성하기 위한 제조·혁신생태계 조성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셀트리온은 5.16일 송도에 신약확보 R&D 16조원, 생산시설 확장 5조원, 글로벌 유통망 확충 2조원, 스타트업 지원 2조원 등 총 25조원 투자 계획 발표

○ (여건 분석) 현재 송도에 셀트리온 등 50개 기업, 길병원·뇌연구원 등 4개 연구소, 연세대 등 3개 대학, GE헬스케어 등 7개 지원기관 등이 입주하였으나, 선도·제조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업생태계 및 혁신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

○ (비전 및 목표) 송도를 세계일류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비전하에 '30년까지 300개 기업유치, 고용창출 15,000명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추진전략도 '제조·선도기업' 중심에서 '제조·선도기업' + 'R&D, 중소·중견,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제조·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 (추진방향)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바이오벤처 지원센터, 유전체 분석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사례 확산 등을 통한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의료산업관련 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90여개사, 벤처·스타트업 150여개사를 추가 유치하여 선도기업,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 산업부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기업으로 구성된 TF에 참여하여 셀트리온 등의 투자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송도지역의 바이오클러터 조성계획을 해외투자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외에 지속 홍보함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외투기업 유치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붙 임】 송도지역 바이오제약산업 관련 생태계구축 계획

OPEN 공공누리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개발투자지원팀 류노열 사무관(☎ 044-203-46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송도지역 바이오제약산업 관련, 생태계구축 계획

비 전	송도를 세계일류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
목 표	
추진방향	